

광주·전남 2곳 재선거...단체장 대거 출마면 최대 7곳

광주 서갑·영암무안신안...수성 vs 탈환 혈투 예고

민주당·민평당·바른미래당 3당 경쟁 치열할 듯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의원과 민주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에서 '녹색 돌풍'으로 빼앗긴 지역구 탈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고, 야권에서도 지역구 수성과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석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자 서구갑 지역위원장과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이 일찌감치 바다 민심을 훑으며 재선거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이날 송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만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년 만에 당내 경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다. 당시 경선에서는 송 이사장이 50.9%로 현역 의원인 박 위원장을 간발의 차로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지만, 녹색 돌풍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에서는 서상석 전 무안군수, 백재욱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지역구 탈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현직 기자 등 정치 신인의 도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권에서는 이윤석 전 의원, 김재원 세한대 교수,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인사로 거론된다.

도 두 지역구와 함께 광주·전남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선거구도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과 야권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각 당 경선으로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선하게 되면 이들 선거구도 보궐선거구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해당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돼 있다. 이럴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에 광주·전남에서만 최대 7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미니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후원회장은 가장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영 의원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거에는 전직 의원과 관료, 언론인 등 다양한 경력의 인사들이 후보군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상석 전 무안군수, 백재욱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지역구 탈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현직 기자 등 정치 신인의 도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권에서는 이윤석 전 의원, 김재원 세한대 교수,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인사로 거론된다.

도 두 지역구와 함께 광주·전남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선거구도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과 야권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각 당 경선으로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선하게 되면 이들 선거구도 보궐선거구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해당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돼 있다. 이럴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에 광주·전남에서만 최대 7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미니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남지사예 뜻 둔 민주당 화당 박지원(목포의원, 바른미래당 주승

용(여수율)과 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장성·함평·영광) 의원이다. 하지만, 여야 각 당이 국회주도권 확보를 위해 현역의원의 출마를 꺼리는 상황인어서, 이들 의원 3명 가운데 누가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본선에 나설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광주 지역에서는 원의 인사가 후보로 뺄 가능성은 크다는 점에서, 야권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당에서 후보 선출이 늦어져 국회의원들이 사퇴시한을 넘길 경우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 보궐선거 없이 재선거만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산 간 안·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에서 민심을 듣는다' 간담회에 앞서 창당을 앞둔 바른미래당 당명이 적힌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공방’ 법사위 파행에 국회 올스톱

여 “한국당 민생법 볼모 잡아”...한국당 “민주당 사과해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8일 국회는 가동을 멈췄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차원에서 시작된 공방이 여야 간의 전면적 대치로 확산하면서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예정된 국방, 행정안전,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가 전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정쟁 자제 결의안을 무색하게 했다.

그런 여야는 이날 하루종일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을 볼모로 잡고 나섰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

당이 법사위원장의 입법 보이콰 선언이 있지만,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상임위 보이콰에 나서 2월 임시국회를 촉박하게 만들었다”며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결의안으로 정쟁 종단을 선언하고, (그것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쟁을 확산하는 게 옳은 일이나”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야당이 먼저 소집을 요청했고, 국회법 상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일관반구 동의도 없이 1시간 전에 일방 취소했다”며 “국회 운영위의 수준이 무뎠던 운전자 수준을 넘어 상습 난폭 운전자 수준이고 추격로 따지면 레드카드 사퇴권”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콰에 대한 선(先)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영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

남을 문제 삼아 ‘평양 올림픽’ 공세를 강화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콰를 “문재인 정권과 추미에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 기간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지 한국당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측 모두의 자제 전환을 촉구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빈손 국회가 되거나 말거나 지도부가 나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며 “양당은 의사일정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합당 전당원 투표 시작

3일간 투표·11일 결의...민평당 호남 지지를 바른미래당 첫 역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우여곡절 끝에 신당의 당명을 ‘바른미래당’으로 확정 짓고 8일 통합 절차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통합에 반대해 신당을 창당한 민평화당은 이날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부터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바른정당과

의 합당 결정을 위한 전(全)당원투표를 시작했다.

사흘간 투표를 거쳐 과반이 합당에 찬성할 경우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최종 결의하고, 13일 통합 전당대회 격인 ‘수입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tbs 의뢰, 5~7일 전국 15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잠재 정당 지지도에서 바른미래당은 지난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0.9%를 기록, 더불어민주당(43.7%)과 자유한국당(20.6%)에 이은 3위에 자리했다. 정의당은 0.5%포인트 내린 6.9%, 민평당은 1.2%포인트 오른 4.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뒷받침이었던 호남에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9.3%에 그치면서 민평당(10.3%)에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평당 당론 1호 법안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민중평화당은 8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내세우는 등 민생 우선시 방침을 천명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결재비중이 커지고 있는 네이비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수료에도 요율 인하를 적용해 서민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민평당은 이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름 붙이고 국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을 살피는 국회, 민주를 실현하는 국회’로 삼아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고, 민

중개혁 과제 완성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평당은 ‘민생우선 법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더해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 선정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광융합산업진흥법, 돌봄노동 지원법 등도 주도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악 학 과	2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8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전형 일 : 2018. 2. 24(토)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8. 2. 24(토) 오전 10시
		신학과(Ph.D.)	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0	
		통합예술치료학과(D.C.S.)	0	
		신학과(Th.M.)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학과(M.S.W.)	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0	
		한국어교육학과(M.Ed.)	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	
		실용음악학과(M.A.)	0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전형 일 : 2018. 2. 24(토) 오전 10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안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길 36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길 36